

The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Religious Education under the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Focusing on a Buddhist-Affiliated High School

Hak-Joo Lee¹, Eunyoung Kim^{2*}

¹Garam High School Attached to College of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²Dongguk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ractical challenges faced in organizing and implementing the religious subject “Life and Religions” at a Buddhist-affiliated high school under the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which will be fully applied starting in the 2025 academic year.

[Contents] Focusing on the curriculum guidelines from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and the case of G High School, this study analyzes the course schedule, credit allocation, teacher assignment, and textbook issues. It also reviews how the semester-based system and high school credit program impact the delivery of religious education.

[Conclusions] The study finds that conflicts between multiple course offering rules and the semester system hinder the stable operation of religious subjects. The undervaluation of religious education may also affect student engagement and teacher morale. It concludes that expanding curriculum options and securing approved textbooks are essential, and highlights the need for ongoing dialogue and policy engagement to ensure the continued contribution of religious education to society.

[Keywords] Religious education, Religious literacy,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Life and Religions,” Religious-affiliated school

* **Corresponding author** Eunyoung Kim (Research Professor, Center for the Expansion of Academic on Korea, Dongguk University) E-mail : tara@dgu.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종교교육 현황과 과제: 불교종립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이학주¹, 김은영²

¹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가람고등학교 교법사, ²동국대학교 K학술혁신연구소 연구초빙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2025학년도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불교종립 고등학교에서 종교 교과인 「삶과 종교」를 편성·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육 현장의 실제적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종교교육의 지속가능성과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교육과정 운영 지침과 G고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삶과 종교」 교과의 편성 시기, 학점 배당, 복수 편성의 조건, 교사 수급과 과목 상치 문제, 교과서 확보 상황 등 세부적인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특히 고교학점제 도입과 학기 단위 운영이 가져온 제도적 변화가 종교 교과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수 편성 지침과 학기제 운영 원칙 사이의 구조적 충돌은 종교 교과의 안정적 운영에 장애가 된다. 둘째, 종교 과목의 상대적 저평가와 수업 시수 불균형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종교 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인정도서 확보는 종교교육의 지속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더불어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변화가 예상되지만,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이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교교육계가 다방면의 소통과 제도개선 참여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종교교육, 종교문해력, 2022 개정교육과정, 「삶과 종교」, 종립학교

I. 서론

2022년 12월 22일 발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이하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이 2025학년도부터 시작되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19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2021년에 총론이 발표되고 2022년 12월에 고시된 교육과정으로 교육부가 시행한 11번째 교육과정이자 7차 교육과정 이후 4번째의 수시 개정 교육과정이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고교학점제와 더불어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됨에 따라 더욱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불교계 종립학교인 G고등학교가 실제 당면한 현실을 살펴보면, 이에 따른 종교교육의 전망과 한계점, 해결 과제를 찾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교육과정 운영은 교육부에서 고시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광역 시도교육청이 일선 학교로 보내는 운영 지침과 방향에 따라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위원회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교육청 보고 등을 통하여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시행된다. 종립학교의 건학이념과 학교 전통 등의 정체성을 유지에 근간이 되는 종교교육 또한 이와 같은 논의 구조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에 「삶과 종교」 과목 편성과 운영도 이에 따라야 한다. 이에 이 글은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에 기반하여 「삶과 종교」 교과목을 편성 운영하기 위한 여정에서 드러나는 현황과 문제점에 집중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종교 교과의 과목 명칭이 「종교학」에서 「삶과 종교」로 변경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다(K. Y. Kim, 2023; E. Y. Kim, 2024; Jung, 2023; Lee, 2020). 이 연구들은 주로 교육과정의 개발, 교과의 내용 체제 성취기준, 교과 내용의 검토 등에 이론적 측면에 집중하고 있어서 개정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학교의 현안과의 접점을 형성하려면 추가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그중에서 학계와 학교 현장의 문제를 가까이에서 검토했다는 측면에서 다른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진 연구도 있다(E. Y. Kim, 2023). 교육과정 재구성과 교사의 자율성 확대, 종교 교사의 특수성 확보와 전문성 신장을 주제로 다루면서 종교 교사 양성과 재교육 관련 교육부의 역할, 초종교적인 종교 교사 모임의 필요성 등을 주장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선행 연구에서 제기한 과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 현장에 조금 더 근접한 검토를 진행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논의의 범주를 대폭 축소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실제적 사안들을 다룸으로써 학교 현장에서의 종교교육 현황과 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함이 논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기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의 교육과정을 일선 학교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청 자료와 학교 현장의 상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일선 학교로 발송한 ‘2025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향(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24)’을 기반으로 G고등학교에서 「삶과 종교」 교과를 편성하고 운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해 보고

자 한다.

동시에 이 논의는 전국의 모든 중립학교에 공통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도 존재함을 밝힌다. 이는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이 광역시도별 교육청, 학교의 유형, 학급수와 학생 수 및 교사의 수, 학교법인과 학교장의 방침,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 지역사회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이 어떻게 얼마만큼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더라도 단위학교 교육과정은 국가나 교육청 수준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에 나름대로 유의미한 검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삶과 종교」 편성 운영 현황

1. 개정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서 주목할 주요 변화

1) 졸업 충족 기준 학점과 교과(군)별 취득 학점

고교학점제와 더불어 적용되는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3년간 총 19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고, 과목별로 기준 학점이 배당되며, 모든 교과목을 학기 단위로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 운영해야 한다.

학점 이수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 3년간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학점인 총 이수학점은 192학점 이상이다. 이 중 교과 영역에서 174학점, 비교과 영역인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18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교과 영역 174학점 중에서 국어, 수학, 영어 교과는 총 이수 학점이 81학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년간 필수 이수 학점은 84점, 자율 이수 학점은 90학점인데, 국어, 수학, 영어, 사회(한국사 6학점은 별도) 교과는 각 8학점을, 과학, 체육, 예술(음악, 미술, 연극)은 각 10학점, 기타 기술·가정, 정보, 제2외국어, 한문, 교양 등을 합하여 16학점을 이수하도록 정하고 있다(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24: 1-4).

2) 과목별 학점의 배당과 편성 운영 범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졸업에 필요한 총 이수 학점과 교과별 총 이수 학점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교과목을 개설할 때 개별 단위 교과별로 학점을 배당하는 기준과 실제 운영할 때 증감 범위도 정하고 있다. 공통 과목으로 개설하는 공통국어, 공통수학, 공통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기본 학점은 4학점으로 편성 운영 범위는 3~4학점으로 1학점을 감소 편성할 수 있지만, 증가 편성은 불가하다. 한국사는 3학점이며, 과학 탐구실험(일반고)은 각 1학점으로 증감이 불가하다.

선택과목의 기본 학점과 편성 운영 범위는 좀 더 세분되어 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

학 과목과 기술·가정/정보/제2외국어/한문 교과(군)의 선택과목은 기본 학점은 4학점이며, 편성 운영 범위는 4~5학점으로 1학점을 증감할 수 있다. 「삶과 종교」가 포함된 체육/예술/교양 교과(군)의 선택과목은 기본 학점이 3학점이며, 편성 운영 범위는 2~4학점으로 1학점 증감할 수 있다. 스포츠 문화, 스포츠 과학, 생애 설계와 자립 교과는 기본 학점이 2학점, 편성 운영 범위는 1~2학점으로 1학점 감편 운영할 수 있고 증편 운영은 불가하다. 이러한 교과목의 기본 학점과 편성 운영 범위의 기준을 종합해 보면, 고등학교에서 단위 교과목의 실제 운영 가능한 학점은 최소 1학점부터 최대 5학점까지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다(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24).

3) 전 교과목의 학기 단위 운영

모든 교과목에서 수업과 평가, 학생부 기록까지 한 학기에 마무리하는 학기제 운영은 고교학점제 시행과 동시에 적용되는 개정 교육과정에서 눈에 띄는 큰 변화 중 하나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학생은 교과 180단위에 창제 24단위를 합하여 모두 204단위를 이수해야 했지만,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에서 6학점, 창체에서 6학점씩 모두 12학점이 감소하여 192학점으로 줄었다. 그런데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 선택의 폭을 확대한 결과 기존 교육과정에서는 3년간 36~38개의 과목을 이수하였지만,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50개 이상의 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수 학점은 줄었는데 과목 수는 오히려 40% 이상 증가한 것은 학기 단위로 모든 과목을 이수하는 고교학점제 덕분이다. 다시 말해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여 학기 단위로 과목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과목을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이 가능한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2. 「삶과 종교」 교과의 편성 운영의 현황

1) 「삶과 종교」 과목의 위치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두 영역으로 구성된다. 교과 영역에는 보통 교과와 전문교과가 있고,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은 자율·자치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이 있다. 보통 교과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과목을 말하며 공통 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분류하고, 다시 선택과목은 일반 선택과목과 진로 선택과목, 그리고 융합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공통 과목은 학생의 기초 소양 함양과 기본적인 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과목이다. 일반 선택과목은 학문별 주요 내용을 다루고, 진로 선택과목은 심화 과목이며, 융합 선택과목은 교과별 융합이나 실생활 응용의 성격을 지닌다. 「삶과 종교」는 보통 교과의 선택과목 중에 진로 선택과목으로 분류되어 있다(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24: 24).

2) 「삶과 종교」 과목의 편성 시기(학년, 학기)

「삶과 종교」 과목을 어느 학년 어느 학기에 편성할 것인지를 살피보자. 「삶과 종교」는 편제상 보통교과의 진로 선택과목으로서 인간과 철학, 논리와 사고, 인간과 심리, 교육의 이해, 보건 등과 함께 교양 과목(군)에 해당한다.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지침에 따르면 1학년은 공통 과목 중심으로 편성하고, 선택과목을 1학년에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삶과 종교」는 진로 선택과목이므로 1학년에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2, 3학년에 편성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지양(止揚)’은 유연한 개념으로 편성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굳이 ‘지양’이라는 명시적 표현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방향으로 편성 운영하라는 교육 당국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24: 11). 참고로 G고등학교에서는 2025년 입학생 대상으로는 2학년이 되는 2026년 1학기에 「삶과 종교」를 편성을 계획하고 있다.

3) 「삶과 종교」 과목의 이수학점

다음은 「삶과 종교」의 이수 학점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문제이다. 「삶과 종교」의 이수 기본 학점은 3학점이며, 실제 편성 운영은 2~4학점으로 1학점을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2, 3학년의 어느 한 학기에 편성하여 2~4학점 사이에서 운영할 수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24). 그러나 「삶과 종교」를 몇 학점으로 운영할 것인지 선택의 폭이 그리 자유롭지만은 않은 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 종교 이외의 과목을 복수로 제시하여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으로 인해 선택지가 제한적이다. 함께 제시하는 과목과 같은 학점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삶과 종교」가 속해 있는 교양 교과와 같은 3학점의 기준 학점이 적용되는 체육, 예술 교과와의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것이 또 하나의 이유이다. 셋째, 교양 과목인 「삶과 종교」와 기술·가정, 정보, 제2외국어, 한문, 교양 등을 합하여 3년간 총 16학점을 이수하도록 정한 학점 배당 기준에 맞도록 이들 교과와의 협의도 필요하다.

4) 「삶과 종교」 교과 담당 교사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면서 과목의 개설은 수업과 평가 기록을 담당할 해당 과목 전공 자격을 지닌 교사 혹은 강사 수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G고등학교의 사례를 보면 종교 교사 2명의 정원을 정규직 종교 교사 1명과 기간제 종교 교사 1명으로 유지하고 있다. G고등학교는 개정 교육과정 적용 1차년도인 2025년 현재 이전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는 현재 2학년에 「종교학」과 「진로와 직업」을 각 1단위로 편성 제시하였는데, 학교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정한 선택과목 개설 기준 인원인 15명을 미충족한 「진로와 직업」은 개설하지 않고 「종교학」 9개 반을 개설하였다. 그리고 2025학년도 1학년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삶과 종교」가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삶과 종교」 수업이 없으므로 종교 과목의 총 수업 시수는 9시간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종교 교사 2명의 나머지 시수는 복수 전공으로 가능한 사회과 수업 일부와 교양 교과 전공 상치 과목을 지원하고 있다. 2026학년도부터는 2학년 1학기에 3학점으로 운영하는 「삶과 종교」가 개설되어 최대 27시간의 수업 시수를 매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III. 「삶과 종교」 편성 운영의 고충과 과제

1. 개정 교육과정 시행으로 인한 학교 상황의 변화

1) 이수 교과목 수의 증가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는 학생들은 각자 선택한 과목을 학기제로 이수하게 되는데 과목 수가 대폭 증가했다. 과목의 수가 늘어나게 된 요인은 앞서서도 살펴보았듯이 1년 동안 이수하던 과목을 학기 단위로 이수하는 고교학점제의 적용과 선택과목 수의 증가에 기인한다. 이전 교육과정 적용 때에는 개인별로 3년간 36~38개의 교과목을 이수하였지만, 개정 교육과정 하에서는 50개 이상의 교과목을 이수하게 되어 대략 40%가량 증가하였다. 이수 과목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에 대한 부담도 커졌음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4일간 하루 2시간 정도 치르면 가능했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기간도 5일간 하루 2~3시간 치러야 가능하게 되었다. 시험 시간표도 개인별 단위로 주어지며, 시험실 공간도 부족하여 대기실을 운영하기도 한다.

2) 이동 수업의 증가

학교에서 지정하는 공통 과목 중심으로 수업을 편성 운영하는 1학년은 대부분 학급 교실에서 수강하고,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체육관 등에서 진행되는 일부 수업만 학급별로 이동하여 수강하면 된다. 그러나 선택과목 중심으로 운영되는 2, 3학년부터는 자기 학급 교실에서 수업하는 비율이 낮고 대부분 교과별 강의실로 이동해야 한다. 같은 학년의 모든 학생은 매시간 선택한 과목의 수업이 배정된 강의실로 이동을 계속하는데, 이 과정에서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다녀오고, 학급 교실에 보관하고 있는 수업 준비물도 챙겨야 한다. 이런 풍경은 고교학점제와 더불어 개정 교육과정 적용 2년 차인 2026학년도부터 볼 수 있겠으나, G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21년부터 3년간 교육부 지정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정책과제를 수행하였다. 이미 3년 전부터 익숙해진 상황이지만, 등교 후 조회 시간, 하교 전 종례 시간, 점심시간, 학급 단위 자율·자치 활동 시간 이외에는 온종일 계속하여 강의실을 옮겨 다니다 보니 학생들에게 10분의 쉬는 시간은 너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3) 세트 수업으로 인한 보결 수업의 증가

선택 중심의 교과 편성 운영으로 인해 학교에서 겪는 가장 큰 변화는 선택과목 세트 수업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같은 시간대에 여러 과목의 수업이 각기 다른 교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업의 교환이나 이동이 안 된다. 담당 교사의 공무 출장이나 질병, 상고 등으로 결강이 발생할 때 보결 수업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른다. 보결 수업의 해결은 학교 급별과 담당 시도교육청에 따라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운영 효과는 의문이다.¹⁾ 물론 초등 교사나 특수교사의 경우에는 자격증을 가진 교원이 학년과 교과에 상관없이 보결 수업이 가능하지만 즉시 투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등학교, 특히 선택 교과 중심으로 다양한 교과를 학점제로 운영하는 고등학교에서 특정 시간에 필요한 보결 수업을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방과 후에 시간을 따로 지정하여 수강 학생들을 모아 보결 수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해당 시간에 다른 교사가 이를 담당하게 된다. 이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G고등학교의 경우 교육과정위원회에서 보결 수업 규정을 마련하여 교직원 회의를 통해 의견 수렴과 동의를 얻어 시행하고 있다. 보결 수업 배정의 순서는 결강 교과목, 교사의 수업 시수 등을 고려하여 보결 수업을 진행하고 주당 기준 수업 시수를 초과하여 보결 수업을 하는 경우 초과시간에 해당하는 소정의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4) 교사 업무량 증가와 과목 상치의 문제

선택과목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일반, 진로, 융합 등 다양한 선택과목이 학년을 달리하여 학기제로 운영되는데, 개설되는 다양한 과목에 비해 전공 자격을 가진 교원 수는 부족하다. 이에 따라 1명의 교사가 여러 과목을 담당하는 다 교과 수업, 학년을 달리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다 학년 수업을 하는 교사가 많아졌다. 다교과 다학년 수업을 담당하면서 학기 단위로 수업과 평가, 학생부 세부 능력과 특기사항 기록까지 마쳐야 하므로 업무량 증가 현상이 상당하다. 학생들이 학기별로 이수해야 할 과목을 개설해야 하므로 전공 교사의 부족으로 과목의 상치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평가하지 않고 성적과 등급을 산출하지 않는 과목에서 많이 발생하며, 이 중에서도 종교교과와 같이 이수 여부만 기록하는 과목에서 더욱 두드러진 현상이다.

5) 동일 교과 수업을 여러 교사가 분담

전공 자격 교원 수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과목 상치의 현상은 교사에게 수업 준비의 부담감을, 학생에게는 무관심과 집중력 저하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 여기에도 동일 과목을 여러 교사가 담당하는 현상까지 더해지면 교수 학습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수업의 질적 하락도 우려된다. 또한 위에서 보았듯이 과목 상치는 평가하지 않는 교과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1) 2023학년도 서울교육청 11개 교육지원청 보결 담당 시간강사 인력풀 모집 공고(2023.05.30.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고 제2023-178호)

이는 학생의 관점에서 보면 학습에 깊이 있게 참여할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연쇄작용으로 학생의 관심과 집중도가 떨어지는 교실 상황에서 교사의 열정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 어려움이 있다.

6) 최소 성취 수준 관리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에서 교과를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에 필요한 최소성취 수준을 정하고 있는데, 과목 출석률 2/3 이상과 학업성취율 40% 이상 도달해야 이수 처리하되 교양 과목과 학교 밖 과목은 출석률 기준만 적용한다. 학생이 선택한 과목이 하나라도 미이수 처리가 되면 총 192학점을 취득해야 하는 졸업 요건 충족에 문제가 생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에서는 최소성취 수준 보장 지도 자료집을 제작하여 안내하고 있다. 학기 시작 전에 최소성취 수준 보장 지도 운영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학기 초에 미도달 예상 학생을 파악하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방과 후 지도, 보충 과제 부여, 학습 멘토링,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AIDT 활용 지도 등의 방법으로 예방 지도해야 한다. 학기 말이나 방학 기간에는 미도달 학생을 파악하여 보충지도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이수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24).

2. 「삶과 종교」 교과 편성 운영에서의 과제

1) 복수 편성과 학기제 운영의 문제

종교 과목 개설 시 복수로 편성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방침은 이전 교육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에서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기회의 제공하도록 안내하면서 이 복수 편성 조항을 명시하였다. 복수라고 함은 2개 이상을 말하므로 「삶과 종교」 이외의 교과를 1개 이상 제시하여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이다.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라는 지침이 종교 교과에 한 해 단 1회만 등장하는데(Ministry of Education, 2024: 13), 이는 종교 과목에 대한 교육 당국의 특별한 관심과 의도가 있어 보이며 반드시 지켜야 함을 강조한 특례 조항으로 볼 수 있겠다.

종교 과목을 복수로 편성하려면 같은 교양 과목(군)에 속한 과목 중에 같은 학점을 적용 제시하고 학생의 희망에 따라 선택하게 하고, 신청한 학생의 수가 개설에 필요한 기준 인원을 충족한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면 된다. 이때 두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려면 같은 학년의 모든 학생을 종교 과목 선택 학생과 다른 과목 선택한 두 그룹으로 나눈 후에 그룹 내에서 전체 학급 수에 맞도록 반 편성을 해서 학급 단위로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과목을 학기제로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1학기에 편성한 종교 과목을 2학기에는 편성할 수 없다. 종교 과목과 함께 복수로 개설했던 과목도 마찬가지로 편성할 수 없다. 그러므로 2학기에는 1학기 와 같은 학점을 배정한 두 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하게 되는데, 이때도 역

시 같은 방법으로 학급을 재편성해야 한다. 그러나 학급을 2학기에 다시 편성한다는 것은 현행 학제에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2학기에는 하나의 과목을 전 학급에 지정하거나 두 개의 과목을 임의로 나누어 지정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종교 교과와 수업은 보통 교과처럼 학급 단위로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동 수업, 즉 세트 수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한지 살펴보자. 이동 수업을 하려면 운영 학점이 같은 다른 여러 과목과 함께 편성하여 운영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술·가정/정보/제2외국어/한문/교양(군) 등의 과목들을 칸막이 없이 선택하여 서로 이동 수업을 하는 것 또한 사실상 불가능하다.

2) 학점제 운영으로 인한 종교 교과와 명과 암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와 학기별 이수 학점의 최소 단위를 3학점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공통 과목의 ‘과학 탐구실험 1, 2’는 기본 학점과 운영 학점 모두 1학점으로 증감이 불가하고, 선택과목의 ‘스포츠 문화’, ‘스포츠 과학’, ‘생애 설계와 자립’은 기본 학점 2학점에 운영 학점은 1학점으로 1학점 감축 운영이 가능하다. 종교 과목은 기본 학점 3학점에 2~4학점으로 운영할 수 있다(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24).

이를 토대로 종교 과목의 운영 학점은 최소 2학점, 최대 4학점으로 수업 시수 확보 면에서 보면 유리한 듯 보인다. 하지만 교실 풍경을 들여다보면 수업 시수의 문제는 교육적으로 볼 때 적지 않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학생의 관점에서, 특히 대학 입시를 위해 공부하는 고등학생이 어떤 과목에 집중하여 공부할 것인가는 너무도 자명하다. 당연히 수능 출제 과목과 내신 성적에 반영하는 과목은 중요시하는 만큼 수업에 집중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교양 교과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하고 집중력도 떨어지는 건 너무도 당연한 현상이다.

그런데도 두 부류의 과목에 같은 3학점을 배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그것은 앞에서 소개하였듯이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과군별로 3년간 총 이수 학점의 범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졸업에 필요한 교과 영역의 174학점 중에서 국어, 수학, 영어 교과는 총 이수 학점이 81학점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수능 출제 과목으로 평가와 성적 산출을 하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을 3학점, 즉 주당 3시간 수업으로 운영한다. 그리고 수능 미출제 과목이며 평가와 성적 산출을 하지 않고 출석률만으로 이수 처리하는 종교 교과도 같은 3학점으로 운영한다. 2, 3학년 학생의 특정 학기만을 단순히 비교해 보면 2학년과 3학년에서 국어, 수학, 영어, 종교 모두 같은 3학점이다. 비평가, 성적 미반영 과목인 「삶과 종교」 수업 현장에서 학생의 관심과 교사의 자존감이 저하되고, 학생의 무관심과 교사의 무력감이 심화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지점이다.

3) 종교 수업 시수 불균형으로 인한 과목 상치와 교과서 문제

전 과목을 학기제로 운영이 불러오는 고교학점제가 불러오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종교 교사의 학기별 수업시수 불균형과 이에 따르는 과목 상치의 발생이다.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는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교과를 학기 단위로 편성하여 운영하는데 종교 과목 또한 마찬가지이다. 학기제로 운영한다는 뜻은 하나의 교과를 단 1학기에 한하여 편성하여 운영한다는 의미이다. 1학기에 개설한 과목을 2학기에 다시 개설할 수 없으니 1학기에는 종교 수업이 있으나 2학기에는 종교 수업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종교 교사라고 수업을 안 할 수는 없으니 2학기에 개설되는 다른 교양 교과를 담당할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이 종교 수업은 중단되고 과목 상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교육과정에 제시된 종교 과목은 「삶과 종교」 하나이므로 고등학교 3년 총 6학기 중에서 단 1학기에만 편성 운영할 수 있고, 특정 학년에서 1년간의 1, 2학기 걸쳐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없다. 따라서 이론상으로 고교학점제에서 1년간 1, 2학기 모두 종교 수업을 가능하게 하려면 교육과정을 승인받은 인정도서가 최소 2종이 필요한 것이다. 추가로 종교 교과서를 확보하려면 시도 교육감으로부터 기타 고시 외 교과목 개설 승인을 받은 인정도서를 발행하면 되는데, 그것 또한 온전히 종립학교와 각 종교계가 감당해야 한다.

개신교와 가톨릭 교육계에서는 「삶과 종교」 인정도서 개발을 완료하여 2025학년도부터 사용하고 있고, 불교계에서 개발한 「삶과 종교」 인정도서는 2025년 상반기에 심사가 진행 중이므로 승인이 이루어지면 2026학년도부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수요가 많은 수능 출제 과목이나 교양 과목 도서는 전문 출판사에서 교과서는 물론 교사용 지도서까지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계 학교에서 사용하는 종교 교과서는 수요와 공급 사이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에서는 관심 밖에 있다. 따라서 종립학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각 교단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인력과 재정을 투입해서 종교 교과의 인정도서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해 왔다. 이와 같이 1종의 종교 교과서를 개발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고교학점제와 동반하여 찾아온 이번 개정 교육과정은 종립학교에 또 하나의 과제와 닮았다. 이와 관련하여 가톨릭의 동성고등학교가 교육감 승인 과목 인정도서 「생활과 인성 I, II」를 승인받아 사용하고 있어서 참고할 만한 사례이다.²⁾

다양한 종류의 종교 과목 교육과정 개발과 인정도서 확보는 앞으로 만나게 될 새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안이라 하겠다. 장기적 차원에서 볼 때 공교육에서 종교교육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종교를 배경으로 한 문화, 예술, 미술, 음악, 건축, 문학, 축제, 풍습, 문화유산, 축제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인정도서의 개발과 승인이 필요하다.

- 2) 동성고등학교는 1학년에 종교학, 철학, 생활과 인성 I 등 3과목을 활용하여 복수로 편성하고, 2학년에서는 생활과 인성 II와 논리학을 복수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IV. 결론: 변화하는 교육제도와 종교교육의 대응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와 함께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이 개시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교는 개정 고시한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교육청의 지침을 준수하여 학교 특성에 맞는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과정을 확정하면 이를 실행하기 위해 부서별 개인별 업무 분담을 하고, 교과별 협의회를 통하여 시수를 분담하고 짜인 일과와 시간표에 따라 수업을 진행한다. 또한 소속된 행정 부서의 직무와 담임 교사 업무를 실행하고 수십 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의 일원으로 협의와 심의, 검토와 의결에 참여한다.

「삶과 종교」 교과는 달라진 교육과정에서 함께 여러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바, 현장에서의 종교교육은 학교 전체의 시스템과 충돌을 최소화하여 원활하게 시행될 때 비로소 진정한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과 취지에서 필자는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특성 가운데 종교 교과 편성 운영의 기본 틀이 되는 중요한 요소를 검토하였다. 그중에서 졸업에 필요한 전체 총 학점과 교과(군)별 이수 학점 합계의 범위, 과목별 학점 배당과 편성 운영의 범위, 전 교과목의 학기 단위 운영 등의 개념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달라진 교육과정에서 「삶과 종교」 교과를 편성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과 분류 체계에서 「삶과 종교」의 위치를 잘 파악하여 지침에 맞게 편성하되 학기 단위로 운영되는 고교학점제에서 다른 교과(군)와 배당 학점을 고려하여 어느 시기에 편성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삶과 종교」의 기본 학점은 3학점이지만 2~4학점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 다른 교과와 복수로 개설할 때 선택지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다른 교과목처럼 「삶과 종교」도 학기 단위로 이수해야 하므로 편성 학년과 학기 및 운영 시수에 따라 종교 교사의 수업 시수는 주변 과목들과 밀접한 상호 관련성이 있다.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학교 현장에는 뚜렷한 변화가 몇 가지 있다.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학기 단위로 과목을 이수함에 따라 학생이 배우는 과목의 수가 증가하고, 이동 수업이 일상화됨에 따라 학생들의 일상이 매우 분주해졌다. 세트 수업이 많아짐에 따라 수업의 이동이 어려워 보결 수업이 증가하고, 교사는 다 교과 다 학년 수업을 맡게 되어 업무량 증가는 물론 과목의 상치가 많이 발생한다. 최소성취 수준을 관리 보장하기 위해 예방 지도와 보충지도 업무도 등장했다.

본 연구를 통해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과 「삶과 종교」 교과 편성 운영과정을 살펴본 결과 드러난 문제점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보았다. 첫째, 여전히 존재하는 복수 편성의 제약 조건이 전 교과 학기제 운영 원칙과 맞물려 과목 편성과 수강생 강좌 분반 작업에 제약이 따르게 되어 「삶과 종교」를 한 학년에서 1, 2학기 모두 편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학급 단위의 강좌 운영과 이동식 세트 수업 모두 어렵게 되고 과목 상치도 발생하게 되었다. 둘째, 종교 과목과

수능 출제 과목을 같은 학점으로 편성 운영함으로써 외형적으로는 선택과목의 수업 시수 균형을 이루는 듯하지만, 내면적으로는 학생과 교사의 심리에 부정적 정서 영향을 주게 될까 봐 우려된다. 셋째, 전 과목을 학기제로 운영하는 고교학점제에서 학기별 수업시수 불균형으로 인한 과목 상치가 발생하여 종교 교사의 정체성과 수업 시수 확보에 적신호가 켜졌으며, 이를 보완하려면 최소 1종 이상의 종교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1, 2학기 모두 종교 수업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종립학교 현장에서 개정을 거듭하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흐름 속에서 종교교육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일까? 제도적으로 교육과정의 틀과 내용을 수정 보완해야 할 부분은 차치해 두고, 종립학교가 집중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우선 교육과정에 적합한 종교 교과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이다. 다양한 종교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풍부한 인정도서를 확보하는 일은 교육정책 입안자와 교육 수요자에게 종교교육의 의지와 실행력은 물론 신뢰와 기대감도 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하여 종교 교사에게 과목 상치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종교 교사가 복수의 자격을 갖춘다면 유연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으로 변화하는 제도와 환경에 맞추어 종교교육을 고등학교 3년 동안 한 학기만 운영해도 충분할 것이라는 의견이 예상되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종교학회(AAR)가 공립학교에서 종교를 교육하는 데 있어 학문적이고 중립적인 접근 방식을 강조하는 지침(Guidelines for Teaching About Religion in K-12)을 발표한 이후, 다양한 종교전통을 학습하여 종교문해력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다문화와 다종교가 공존하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토양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환경에서도 종교교육에 대한 방관과 축소보다는 그 장점과 기여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불교 사상의 철학적 보편성은 교육대상으로서 그 가치가 풍부하다. 연기적 세계관에 기반한 시스템적 사고, 상호의존적 존재론, 불살생으로 대표되는 생태론적 생명 존중의 윤리 등은 인류 최대의 과제인 환경문제 해결에 매우 유용한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불교의 이러한 철학적 보편성은 다문화 다종교 사회에서 다른 지역, 문화, 종교와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는 세계 시민교육의 테마로도 활용할 수 있다. 생명 존중, 자살 예방, 폭력 예방, 친절 교육, 언어 예절, 동물권 교육, 환경교육 등의 영역에서 종교와 융합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가치를 인접 교과에서도 다루고 있다고 할지도 모르겠으나, 객관적 지식이 아닌 삶의 태도로서의 보편적 종교성을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과목은 종교 교과인 것이다.

동시에, 현장의 종교교육 담당 교사들은 배타주의 또는 포괄적 배타주의를 경계해야 하는 성찰의 측면도 필요하다. 주지하듯이 종립학교는 현실적으로 설립 정신과 소속 종교 교단의 요청에 부응할 때 존속 가치가 있다. 그리고 종교교육 담당자들의 대부분이 교사인 동시에 성직자,

또는 이에 준하는 신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배타주의나 포괄적 배타주의로 흐를 수 있음을 스스로 성찰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복수과목 설치와 학생인권조례 등의 제도를 통해 호교론적인 종교교육의 방향이 제한된 만큼, 종교교육이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적 가치에 대해 종교교육계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고민과 대안 제시가 이어져야 한다.

변화하는 학교 교육제도에 대한 대응 중 교사 문제와 관련하여 이론상으로는 순회 교사, 공동 교육과정(거점 학교), 종교교육 강사 채용 등의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겠지만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입시 주요 과목에도 적용하기 어려운 제도를 이수 여부만 기록하는 P/F 과목인 종교 교과 운영을 위해 여러 중립학교가 종교 교단과 종파를 떠나 시설과 인력을 교류 협력하기에는 여러 행정적인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교사 확보 문제는 앞으로 더욱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종교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은 절대다수가 종교계 사립학교인데, 교사 채용은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임용고사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물론 종교 교사의 경우는 현재까지는 특수성을 인정하여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전제하에 자체 선발하여 임용하는 것이 허용되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립학교 교사 선발에 준용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 문제는 앞서 말한 복수의 자격을 포함하여 교사의 양성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한다. 즉, 학교 현장과 교사 양성기관 간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개정마다 문제가 되는 종교 관련 교과서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이에 따른 교과서 개발이 필요한데, 개별 종단이 아닌 종교계 전체가 공동으로 교과서를 개발하거나 교육부 또는 교육청에 개발을 요청하는 문제들이 기존에 제안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교육과정이 발표된 후 대응하는 측면에 가깝다. 종교 교과 교육과정 개발에 지금까지처럼 교육부의 요청에 학계에서 개별 종교나 개별 학자가 참여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교양 교과 교육과정 개발 단계에서부터 범종교계와 학계가 협력하는 ‘한국 종교 교과 교육과정개발 위원회’ 같은 상설기구를 설립하여 교육부와 상시 소통하면서 교육정책에 종교계의 요구를 선제적으로 전달하고 이를 관철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종교의 자유와 공교육의 중립성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종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증진 시키는 진정한 종교교육이 학교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Jung, M. S. (2023). A Critique of the Subject, 「Life and Religion」 in 2022 National Curriculum: Focusing on an Aims of Religious Education. *Faith & Scholarship* 28(1),

- 101-121.
- Kim, E. Y. (2020). Development of Religious Textbooks for Buddhist Missionary Schools: System and Reality, the History of Encounter and Parallel.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64, 41-54.
- Kim, E. Y. (2023). Prospects and Task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for the Subject of <Religion in Human Life>: Focusing on Teachers' Autonomy and Expertise.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74, 1-16.
- Kim, E. Y. (2024). A Study on the Description Related to Buddhism in Religious Studies: Focusing on National Curriculum and Textbooks.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78, 1-16.
- Kim, K. Y. (2023). A Study on 'Religion in Human Life' According to the 2022 Revised Curriculum,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79, 19-42.
- Lee, J. C. (2020). Changes in Religious Subjects and the Direction of Textbook Policy according to the Revision of The 2022 Curriculum.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51, 41-60.
- Yoo, S. H. (2024). Exploring 'the Uniqueness of Subject' of Religious Education: A Critical Review of the 2022 <Life and Religion> Curriculum.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56(1), 217-242.
- 교육부 (2022a).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고등학교(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2022. 12. 22.). 세종: 교육부. (Translated in English) Ministry of Education (2022a). *Explanatory Commentary on the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General Guidelines for High School (#2022-33)*.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교육부 (2022b). 개정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2022. 12. 22.). 세종: 교육부. (Translated in English) Ministry of Education (2022b). *General Guidelines for Explanatory Commentary on the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2022-33)*.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교육부 (2022c). 고등학교 교양 교과 교육과정(고시 제2022-33호 [별책 19]). 세종: 교육부. (Translated in English) Ministry of Education (2022c). *National Curriculum Liberal Arts Subjects for High schools (#2022-33 [Annex 19])*.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교육부 (2024). 2025학년도 이후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인정 기준 및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운영 계획(기초학력진로교육과-3248, 2024. 9. 12.). 세종: 교육부. (Translated in English) Ministry of Education (2024). *Implementation Plan for the Credit Recognition Criteria and Guidance to Ensure Minimum Achievement Standards under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from the 2025 Academic Year.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 2025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향[수정](중등교육과-29901).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Translated in English)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24). *Curriculum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Plan for the First Year of High School in the 2025 Academic Year [Revised] (Division of Secondary Education-29901)*. Seoul: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